

디지털기술, 결제부터 소비자 권익보호까지 ‘하나’로

카드의 디지털혁명

하나카드

비자 토큰 기술, 국내카드사 첫 적용
업계 최초 포인트기반 체크카드 출시
디지털 능력 배양... HDU 프로그램



무선통신)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
대면 결제가 이뤄진다.

하나카드의 신용·체크카드가 없는
고객이라면 ‘하나1Q페이’ 앱을 설치한
뒤 ‘카드바로발급’을 진행하면 된다.

플라스틱 카드 없이 1Q페이 앱에 카
드를 등록하면 해외 110여개국에서 모
바일 터치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
으며, 30여개 국가에서는 버스·지하철
등 대중교통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.

하나카드 관계자는 “하나1Q페이와
함께 NFC 결제가 되는 국가로 여행을
하면 환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”며
“해외에서 로밍 와이파이(도시락) 선불
유심을 이용하는 고객도 앱만 설치하면
누구나 편리하게 NFC 결제 서비스를
이용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하나카드는 10월부터 마스터카드와
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내년
에는 유니온페이와도 기술 제휴를 진행
할 예정이다.

◆ 포인트 계정만으로 체크카드 발급

하나카드는 업계 최초로 포인트를 기
반으로 한 체크카드를 내년 초 출시한다.



장경훈 하나카드 사장.

매해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막고, 금융
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.

기존 체크카드는 계좌를 연동해 발급
받는 게 일반적이었다. 그러나 포인트
기반 체크카드는 별도 은행 등 금융기
관의 결제계좌 없이 고객이 보유한 포
인트 계정만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
있다는 점이 특징이다.

이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
고객(외국인, 미성년자 등)도 간편하게
체크카드를 발급·이용할 수 있을 것이
라는 게 하나카드 측의 설명이다.

하나카드는 우선 하나멤버스 회원을
대상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.

하나멤버스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
구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



하나카드의 HDU(Hana Digital University) 프로그램.

/하나카드

체크카드 거래 시 하나머니가 차감된
다. 잔여포인트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
서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하다.

또 국제브랜드로 카드를 발급하면 별
도의 환전이나 해외 이용 수수료 없이
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.

단순히 포인트만 사용했을 때는 받을
수 없던 추가적립 및 캐시백 할인 등의
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. 포인트가 부
족할 경우엔 자동충전을 진행할 수 있
으며,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 내의 신
용을 제공해 결제의 편의성을 제고했
다.

◆ 임직원 디지털 교육... 디지털 체력 ↑

하나카드는 내부 구성원들의 디지털
마인드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HDU

(Hana Digital University) 프로그램
을 운영하고 있다.

HDU 프로그램에 선발된 직원은 빅
데이터 및 디지털 비즈니스 영역에 대
한 교육을 제공받는다.

최근에는 비자 이노베이션 센터(VI
SA Innovation Center)와의 협업을
통해 빅데이터 기반 모델 및 디지털 서
비스를 실제 개발·업무에 적용하는 성
과도 이뤘다.

하나카드 관계자는 “전 임직원을 대
상으로 디지털 역량의 기반이 되는 빅
데이터·코딩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조
직의 디지털 체력을 갖추나갈 것”이라
고 전했다.

/홍민영 기자 hong93@metroseoul.co.kr

손해보험사도 어닝쇼크... 순익 24% ↓

(올 1~3분기)

금감원 ‘손보사 경영실적 잠정치 발표’
장기보험·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

올해 1~3분기 손해보험사의 당기순
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.6% 감소했
다. 장기·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이 급
등하면서 보험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한
영향이다.

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‘2019년 1
~3분기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(잠
정)’ 자료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손보업
계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으로 전
년 동기 대비 24.6%(7000억원) 줄었다.

지난 2014년 보험사의 회계연도 변경
이후 지속적으로 늘던 3분기 누적 당기
순이익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
했다. 2014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
2조2000억원(16.8%)을 기록했다. 이후
2018년 2조9000억원(-17.6%)으로 줄
어든 후 내림세를 이어갔다.

올해 3분기까지 보험영업손실은 3조
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(1조8000억원)
보다 1조9000억원(106.2%) 늘었다. 장
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증가
하며 손실확대로 이어진 것이다.

장기보험이 손실 규모는 3조3000억원
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
(48.1%) 늘었다. 판매경쟁에 따른 사업
비 지출이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올해
9조5000억원으로 11.6% 증가했다. 실손
보험 등 보험금 지급도 33조1000억원에
서 34조7000억원으로 4.7% 늘었다.

자동차보험은 정비요금 인상과 취업
가능연한 상향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

면서 손실규모가 8000억원으로 전년 동
기 대비 6000억원(303.1%) 증가했다.

반면 고금리 채권 등의 처분이익 증
가로 투자이익이 커지면서 순이익 감소
규모가 축소됐다. 투자이익이 6조7000
억원으로 전년 동기(5조9000억원) 대비
9000억원(14.5%) 늘었다.

원수보험료(매출액)는 66조9000억원
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
(5.2%) 증가했다. 장기보험 매출액은
보장성보험의 판매경쟁이 지속되면서
전년 동기 대비 4.8% 오른 39조6000억
원을 기록했다. 자동차보험 매출액은
자동차등록대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효
과로 전년 동기 대비 4.3% 늘어난 13조
원으로 나타났다.

9월 말 손보사의 총자산은 319조원으
로 전년 동기 말(290조원) 대비 10.0%
(28조9000억원) 늘었다. 손보사의 총자
산이익률(ROA)은 0.95%, 자기자본이
익률(ROE)은 7.12%로 글로벌 저금리
환경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했다.

금감원은 “사업비 증가와 손해율 악
화에 따른 장기보험의 이종교와 자동차
보험의 손익개선 지연으로 보험영업손
실이 심화되는 가운데, 단기 실적 방어
를 위한 보유자산의 매각은 향후 투자수
익률 악화 등 장기적 부정적인 결과를
초래할 우려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손보사는 현재와 같은 단기적
외형경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
전반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”며
“금감원도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상품
개발, 영업경쟁 및 자산운용 등 리스크
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”이
라고 밝혔다.

/김희주 기자 hj89@

올 3분기 성장률 2.0% 사수 ‘촉각’

한은, GDP 증가율 잠정치 발표

지난달 2.2% → 2.0% 하향 조정
전망치대로면 10년만에 최저치

한국은행이 3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
산(GDP) 증가율 잠정치를 발표한다.
한은이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
치를 기존 2.2%에서 2.0%로 하향 조정
한 가운데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결과
에 따라 연간 성장률 2% 달성 여부에
관심이 집중된다.

올해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에
서 관심사는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3분
기 성장률 속보치(전기 대비 0.4%)보
다 더 오를지, 떨어질지 여부다.

추계 시 이용자료의 사정에 따라 속
보치와 잠정치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.
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잠정치는
각각 -0.4, 1.0%로 속보치 대비 각각 0.
1%포인트 하향 조정된 바 있다.

3분기 성장률 잠정치에 따라 올해 연



간 2% 성장 달성 가능성이 점쳐질 전망
이다.

앞서 한은은 지난달 말 ‘경제전망
(2019년 11월)’에서 올해 성장률을 2.2%
에서 2.0%로 0.2%포인트 하향 조정했다.

한은은 지난해 1월만 해도 올해 경제
성장률이 2.9%로 3%대에 가까울 것으
로 예측했지만 올해 들어 1월 2.6%, 4월
2.5%, 7월 2.2%로 잇따라 내렸다. 여기
에 추가로 0.2%포인트 낮춘 것이다.

기존 전망치에서 0.2%포인트 하향
조정됐지만 그래도 2% 선은 지킬 것이
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. 전망
치대로 2.0%를 기록할 경우 지난 2009
년(0.8%)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.

그러나 올해 2.0% 성장률을 달성하
려면 3분기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전제
하에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.
97% 이상 돼야 한다는 점에서 2%대 성
장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.

한은과 같이 올해 2.0% 성장률 달성
을 예상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
CD)와 국제통화기금(IMF), 한국개발
연구원(KDI) 등 정도다.

반면 대부분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
1%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 LG
경제연구원은 1.8%로 내다봤고 한국경
제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, 한국금융
연구원,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은 올해
성장률 전망치를 1.9%로 제시했다.

/김희주 기자

윤석현 “DLF사태, 투자자·금융사 모두 피해”

(금융감독원장)

윤석현 금융감독원장(사진)이 2일 ‘파생
결합펀드(DLF) 사태와 같이 취약한 소비
자 보호와 내부통제는 투자자와 금융회사
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’고 강조했다.

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
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오
찬간담회를 갖고 “최근 우리 금융시장
이 DLF 사태로 혼란을 치르고 있다”며

이 같이 말했다. 간담회에는 뉴욕멜론은
행과 미즈호은행, 노무라금융투자 등 18
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.

그는 “투자자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
금융회사 입장에서 단기적인 이익을
쫓는 영업 관행이 결국 소비자 보호 약
화 및 투자자 신뢰를 손상시켜 금융회
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해친다”고 설명



했다.

윤 원장은 “금감
원은 금융소비자들
의 신뢰 확보를 위
해 금융상품의 전
단계를 아우르는 감
독방안 마련 등 다

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”며 “외국계 금융
회사도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금융소
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경영모델을 뿌리
내려 달라”고 당부했다.

/안성미 기자 smn1@